

고2문학 지학사

1.1.(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기출 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A]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B]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C]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D]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E]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③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며 시상이 촉발되는 부분으로, 그중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② [B]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으로, 그중 '멀리로 멀리로만'은 화자가 대상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③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그중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④ [D]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낸 상황을 나타낸다.
 ⑤ [E]는 대상에 대한 깨달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가까이에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3. A~E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는 '복숭아나무'가 '여러 겹의 마음'을 지녔다는 표현 등을 통해 잘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
 ② B에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란 우리가 어떤 대상에 접근하기도 전에 갖게 되는 관념, 즉 선입관을 의미하며 '멀리로'라는 표현이 이러한 의미를 강조한다.
 ③ C에서 '수천의 빛깔'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관을 뛰어넘어 대상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것을 가로막고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장애물을 의미한다.
 ④ D에서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는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대상의 참모습을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고백하는 표현이다.
 ⑤ E은 알지 못하는 대상을 회피, 거부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4. 이 시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화자가 대상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② ㉡은 화자와 대상이 이해와 조화를 이룬 경지를 나타낸다.
 ③ ㉠은 화자가 대상의 부정적 측면에, ㉡은 긍정적 측면에 주목한 것이다.
 ④ ㉠에 비해 ㉡은 대상과 화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나타낸다.
 ⑤ ㉠에서 ㉡으로의 변화를 통해 대상과의 진정한 교감을 소망하는 주제 의식을 보여 준다.

5. ㉠과 ㉡에 담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
| ① 대상과의 소통 부재 | 대상과의 소통 |
| ② 대상에 대한 오해 | 대상에 대한 이해 |
| ③ 대상에 대한 실망감 | 대상에 대한 기대감 |
| ④ 대상에 대한 편견 | 대상과의 진정한 교감 |
| ⑤ 대상에게 느끼는 거리감 | 대상에게 느끼는 친밀감 |

6.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복숭아나무'는 번덕스럽고 까다로운 마음을 지닌 어떤 사람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과 '사람이 앉지 못 할 그늘'은 화자가 추측한 내용으로, 둘 사이의 인간적 교류를 차단하는 복숭아나무의 양면적 속성에 해당한다.
- ③ 6행의 '멀리로 멀리로만'과 8행의 '멀리서'는 동일한 의미로, 복숭아나무 곁에 다가가고 싶지 않은 화자의 심리를 나타낸다.
- ④ '수천의 빛깔'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복숭아나무의 속마음으로,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 ⑤ '저녁이 오는 소리'는 복숭아나무가 꽃잎을 다 떨어낸 시간이며, 화자와 대상 사이의 이해와 통합의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다.

7.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 ② 경어체를 사용하여 차분한 어조를 형성한다.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대상시적 여운을 남긴다.
- ④ 독백적 어조로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 ⑤ 특정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중심 소재에 초점을 맞춘다.

8. 위 작품의 화자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속에 있는 화자가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 ② 작품 속에 있는 화자가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있다.
- ③ 작품 밖에 있는 화자가 대상의 질적인 성숙을 격려하고 있다.
- ④ 작품 밖에 있는 화자가 위기에 처한 대상의 회복을

돕고 있다.

⑤ 작품 속에 있는 화자가 대상으로부터 이해와 공감을 받고자 하고 있다.

9. 위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여러 겹의 마음' 때문에 대상을 멀리 했었어.
- ② '멀리로 멀리로'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나타내.
- ③ '수천의 빛깔'은 대상이 지닌 내적인 참모습이나 본질을 가리켜.
- ④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대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의 느낌이야.
- ⑤ 화자가 나무 그늘 밑에 있다는 것은 대상의 양면성을 포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줘.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서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10. 위 작품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대상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 ② ㉡은 화자와 대상이 이해와 조화를 이룬 경지를 나타낸다.
- ③ ㉠은 화자가 대상의 부정적 측면에, ㉡은 긍정적 측면에 주목한 것이다.
- ④ ㉠에 비해 ㉡은 대상과 화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음

을 나타낸다.

- ⑤ ㉠에서 ㉡으로의 변화를 통해 대상과의 진정한 교감을 소망하는 주제 의식을 보여 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꺼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 안도현, <간격>

1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 ② ‘숲’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③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관찰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 ⑤ 시적 화자의 기존의 사고로부터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사한 시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화자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독백조를 통해 화자가 얻은 삶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숲에 대한 깨달음 전과 깨달음 후의 화자의 인식이 제시되어 있다.

13. 이 시에서 ‘간격’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인과의 거리감을 뜻한다.
- ②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이다.
- ③ 하나의 숲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이다.
- ④ 사람들 사이에 유지되어야 할 적당한 거리이다.
- 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모가 난 사람을 뜻한다.

14.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
- ②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 ③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 ④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 ⑤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화자가 깨달음을 얻기 전을 의미한다.
- ② ㉡ : 숲의 본질을 파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을 의미한다.
- ③ ㉢ : 나무 사이의 간격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 간격을 지닌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숲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 ⑤ ㉤ : 숲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의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6. 이 시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숲에 가 보니 나무들은 / 제가꿈 서 있더군
 제가꿈 서 있어도 나무들은 / 숲이었어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며 / 숲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 낯선 그대와 만
 날 때
 그대와 나는 왜 / 숲이 아닌가

- 정희성, <숲>

- ① 위 시는 개인 간의 간격을 강조하지만, <보기>는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강조한다.
- ② 위 시는 숲에 대해 주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만, <보기>는 객관적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
- ③ 위 시는 개인 간에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강조하지만, <보기>는 사회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조한다.

④ 위 시는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강조하지만, <보기>는 개인의 주관과 신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⑤ 위 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인정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보기>는 사회적 화합을 위한 소통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7. 이 시의 화자[A]와 <보기>의 화자[B]가 대화를 나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언덕 위에 줄지어 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 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나뭇가지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잔가지
 하나하나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 도종환, <여백> 중에서-

① B : 저는 나무의 모습이 인간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② A : 저 역시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③ B : 그렇군요. 저는 허공이 나무의 존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여백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④ A : 당신이 말하는 여백을 위해서는 나무들처럼 사람 사이에도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어야겠군요.

⑤ B : 그렇습니다. 사람은 넉넉한 허공이 주는 외로움을 이겨낼 때, 비로소 성숙한 삶에 이를 수 있는 법이지요.

**고2문학
지학사**

1.1.(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수능형 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
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
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1.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의 화자는 평소에 거리감을 느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던 대상인 ‘복숭아나무’를 새롭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대상에 대해 가졌던 기존의 태도를 반성하게 된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의 변화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상과 소통하며, 대상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①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은 화자가 주목한 대상의 특성으로,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갖게 된 이유에 해당하겠군.
- ②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은 대상에 대해 가졌던 화자의 선입견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부정적이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음을 화자가 알게 된 것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새롭게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군.
- ④ ‘그 여러 겹의 마음’에 화자가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은, 대상을 통해 화자 스스로가 자신의 외로움을 되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겠군.

⑤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화자가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대상 곁으로 화자가 다가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군.

2.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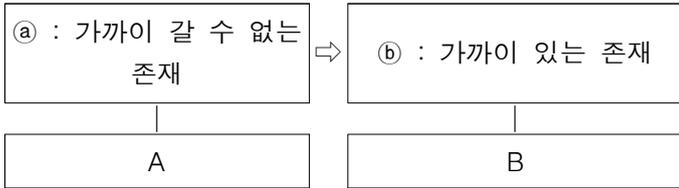
<보기>
내 창작도 태반은 여기서 되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나, 이 철학자와 벗하여 상(想)이 뒹뒹하던 것만은 사실이다. 상이 막히어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책상을 떠나 이 철학자의 그늘 밑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거닐면서 매듭진 상을 골라서 풀곤 했다. 생각이 웅색해도 이 그늘을 찾았고 독서와 붓놀음에 지친 피로가 몸에 미칠 때에도 이 그늘을 찾았다. 실로 이 늙은 철학자 밤나무는 나에게 있어 내 생명의 씨를 밝혀 주는 씨앗터였다.

이러한 씨앗터를 내 이제 떠나 살게 되니 해마다 버들잎에 기름이 지면 이 늙은 철학자의 그늘 밑이 더할 수 없이 그리워진다. 인제 그 밤나무에도 잎이 아마 푸르렀겠지. 비바람에 고삭은 가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안부가 지극히 알고 싶어지고,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 보고 싶어진다. 더욱이 생각의 가난에 원고를 자꾸만 찢게 될 땐, 어쩐지 그 ㉡ 그늘 밑 자연석 위에 잠깐만 앉아 눈을 감아 보아도 매듭진 상의 눈앞은 흰히 트여질 것만 같게 그 품속이 생각한다.

- ① ㉠은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장소이고, ㉡는 필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이다.
- ②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았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주었던 장소이다.
- ③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사색에 잠겼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대한 글을 썼던 장소이다.
- ④ ㉠은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이고, ㉡는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고민이 저절로 해소되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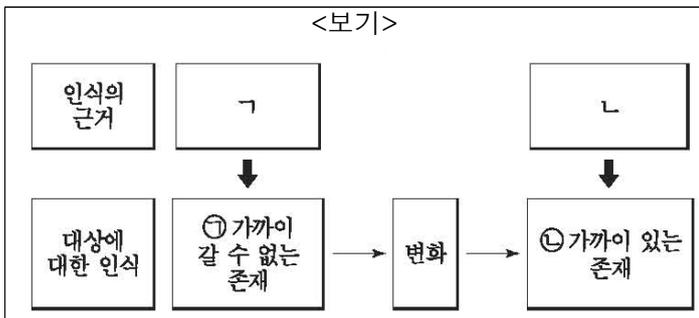
⑤ ㉠은 곁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는 떠나온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그리움을 강화하는 장소이다.

3. 이 시의 ㉠(1연 : 그 복숭아나무)와 ㉡(2연 :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A와 B에 들어갈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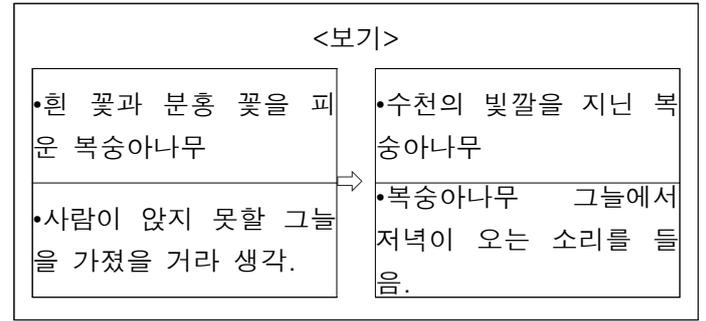
- ① A : 대상과의 소통 부재
- ② A : 대상에 대한 편견
- ③ A : 대상에 대한 실망
- ④ B : 대상에 대한 이해
- ⑤ B : 대상과의 진정한 교감

4. 이 시의 ㉠과 ㉡에 담긴 화자의 인식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과 ㉡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으로 묶인 것은?



| | ㉠ | ㉡ |
|---|--------------|--------------|
| ① | 대상과의 소통 부재 | 대상과의 교류 |
| ② | 대상에 대한 오해 | 대상에 대한 이해 |
| ③ | 대상에 대한 실망감 | 대상에 대한 기대감 |
| ④ | 대상에 대한 편견 | 대상과의 진정한 교감 |
| ⑤ | 대상에서 느끼는 거리감 | 대상에서 느끼는 친밀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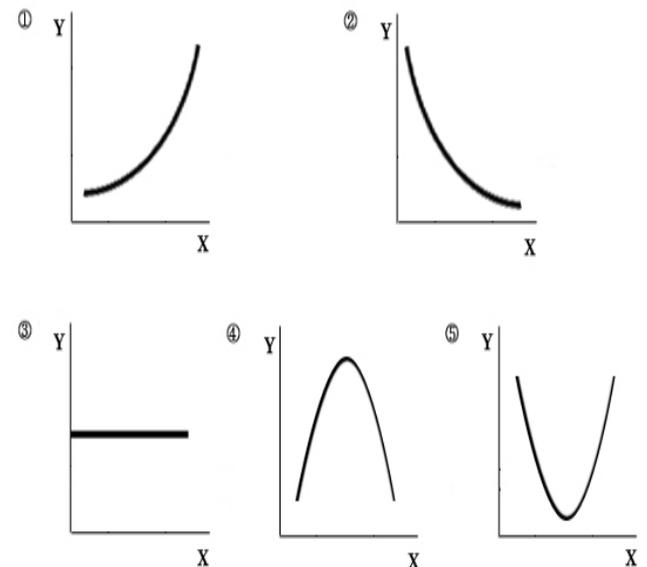
5. 위 시의 화자의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를 <보기>와 같이 파악했을 때, 그 변화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
- ② 기존의 자아의 정체성 유지
- ③ 나에게 다가오는 대상 수용
- ④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신적 성숙
- ⑤ 대상에 몰입하여 친화적 관계 형성

6.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위 시에서 화자와 시적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X는 시간, Y는 거리)

시에서 말하는 거리란,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 거리를 말한다. 이러한 거리에는 대상에 대하여 호의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가까운 거리'와, 대상에 대하여 담담하고 객관적 자세를 유지하는 '절제된 거리', 그리고 대상에 대하여 냉담 또는 반감을 드러내는 '먼 거리'가 있다.



7. 위 시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그릇
 언제인가 접시는
 깨진다.

생애의 영광을 잔치하는
 순간에
 바싹 깨지는 그릇
 인간은 한 번
 죽는다.

물로 반죽하고 불에 그슬려서
 비로소 살아 있는 흙
 누구나 인간은 한 번쯤 물에 젖고
 불에 탄다.

하나의 접시가 되리라.
 깨어져서 완성되는
 저 절대의 파멸이 있다면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빚어진
 모순의 흙, 그릇.

-오세영, <모순의 흙>

- ① 인간이 지닌 한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② 불교적 인생관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 ③ 논리적으로 모순 된 진술을 통해 화자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문제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교감하려는 노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8.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목련꽃 지는 모습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말라
 순백의 눈도 녹으면 질척거리는 것을
 지는 모습까지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그대를 향한 사랑의 끝이
 피는 꽃처럼 아름답기를 바라는가
 지는 동백처럼
 일순간에 저 버리는 순교를 바라는가
 아무래도 그렇게는 돌아서지 못하겠다
 구름에 달처럼은 가지 말라 청춘이여
 돌아보라 사람아
 없었으면 더욱 좋았을 기억의 비늘들이
 타다 남은 편지처럼 날린대서
 미친 사랑의 증거가 저리 남았대서
 두려운가
 사랑했으므로
 사랑해 버렸으므로
 그대를 향해 뿔었던 분수 같은 열정이
 피딱지처럼 엉켜서
 상처가 기억되는 그런 사랑일지라도
 낫지 않고 싶어라
 이대로 한 열흘만이라도 더 앓고 싶어라

- ① 이 작품은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보기>는 직유의 표현을 사용하여 시어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이 작품은 <보기>와 달리 도치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④ <보기>는 이 작품과 달리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이 작품과 <보기>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달하려는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9. 이 작품과 <보기>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塔)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 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쁨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① <보기>는 이 작품과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 ② <보기>와 이 작품은 모두 경어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보기>와 이 작품은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이 작품은 <보기>와 달리 대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나타난다.
- ⑤ <보기>는 의문형의 명상적 어조가, 이 작품은 평서형의 고백적 어조가 돋보인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서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10.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화자와 복숭아나무의 어떤 인연을 노래하고 있지만, 여기서 복숭아나무는 타인 일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일방적 관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 ① ㉠은 곁으로 드러나는 타인의 피상적인 모습이다.
- ② ㉡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의미한다.
- ③ ㉢에서는 반복을 통해 깨달음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은 ‘수천의 빛깔’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낸다.
- ⑤ ㉤은 ㉡에서 느꼈던 감정을 반복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어려움을 드러낸다.

정답 및 해설

기출문제

| | | | | | | | | | |
|----|---|----|---|----|---|----|---|----|---|
| 1 | ② | 2 | ④ | 3 | ③ | 4 | ③ | 5 | ③ |
| 6 | ③ | 7 | ① | 8 | ① | 9 | ⑤ | 10 | ③ |
| 11 | ③ | 12 | ② | 13 | ④ | 14 | ⑤ | 15 | ⑤ |
| 16 | ① | 17 | ⑤ | | | | | | |

1. <답> ②

1연 2행을 보면 화자는 대상을 ‘그 복숭아나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는 시적 감흥을 촉발시키는 복숭아나무가 일반적 대상이 아니라 ‘그 복숭아나무’라는 특정한 대상임을 부각하는 효과를 낸다. 시상이 전개될수록 ‘그’라는 지시어는 ‘그 나무’, ‘그 복숭아나무’ 등으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독자에게 시적 대상이 특정한 ‘그 복숭아나무’임을 끊임없이 환기한다. ㉠ ① 이 작품은 규모가 거대하고 성대할 때 조성되는 웅장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이 시에 사용된 ‘-습니다’라는 경어체 표현은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차분히 드러내면서 고백적인 어조를 형성하는 데 기능하고 있다.

③ 2연을 도치된 문장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작품의 시적 상황은 긴박한 분위기를 띠지 않고 있다.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시적 여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이 작품에서 ‘그 복숭아나무’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화된 대상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흰꽃’, ‘분홍꽃’ 등에서 색채어 사용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이것을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답> ④

[D]에서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는 구절과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이라는 구절에 드러난 ‘그 나무’는 분명 ‘흰꽃’과 ‘분홍꽃’으로만 인식된 ‘그 나무’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우고 싶은 꽃빛’이라는 구절을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그 나무’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아 ‘피우고 싶은 꽃빛’은 대상의 이러한 다양한 마음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① [A]의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라는 구절에서 ‘그 복숭아나무’에 대해 거리를 두는 화자의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복숭아나무’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으로 드러난다. ② [B]에서는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화자가 그 나무를 피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 나무의 ‘그늘’에 앉지 않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쳐 가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③ [C]에서 ‘그 복숭아나무’는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을 가진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B]에서 그 나무는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는 존재였다. 따라서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이며, ‘눈부셔’라는 표현은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면서 부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⑤ [E]에서 ‘흩어진 꽃잎들’이라고 했으므로 ‘그 복숭아나무’의 꽃잎들은 이제 나무에 피어 있지 않다.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는데, 정작 그 꽃잎들은 이제 저버린 것이다. 따라서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그 복숭아나무’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꽃잎이 진 ‘그 복숭아나무’를 가리킨다.

3. <답> ③

C에서 ‘수천의 빛깔’은 ‘복숭아나무’가 갖고 있는 내면의 진실 혹은 본질을 뜻하는 표현으로서, ‘우리를 현혹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발견하게 되는 대상의 진상(眞相)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4. <답> ③

㉠은 화자가 선입견으로 본 복숭아나무의 그늘인 반면,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마음을 읽은 후 복숭아나무를 이해하고 복숭아나무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와 변화는 대상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편견과 진정한 이해라는 사고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대상의 부정적 면과 긍정적 면에 주목하였다는 ③의 설명을 적절하지 않다.

5. <답> ③

이 시에서 화자는 대상에 대한 편견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가, 서서히 오해를 풀고 대상을 이해하고 있다. 이때 화자의 인식은 실망감이나 기대감과는 관련이 없다.

6. <답> ③

6행의 ‘멀리로 멀리로만’은 쉽게 다가가지 못할 것이라는 오해로 인해 대상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심리 표

현이며, 8행의 '멀리서'는 그 나무가 지닌 마음의 비밀을 비로소 깨닫고 난 뒤 화자가 갖게 된 따뜻한 이해와 사랑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오답풀이]① 남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복잡한 마음을 지닌 어떤 사람을 '복숭아나무'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②'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과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은 화자가 추측한 복숭아나무의 속성이다.④7~12행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⑤'흩어진 꽃잎들'에서 꽃이 진 상태임을 알 수 있으며, 사물의 경계가 흐려지는 '저녁'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이해와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7. <답> ①

이 작품에서 의인법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지만,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8. <답> ①

시적 화자는 '나'로 작품 안에 있으며 대상인 복숭아나무의 참모습을 '수천의 빛깔'로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② 대상과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일방적인 이해가 나타난다. ③ 대상의 성숙을 화자가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참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내용이다. ④ 대상은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 ⑤ 대상이 화자를 이해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9. <답> ⑤

화자는 대상이 지닌 양면성을 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오해와 편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화자가 복숭아나무 그늘 밑에 있는 모습은 대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10. <답> ③

㉠은 화자가 선입견으로 본 복숭아나무의 그늘인 반면,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마음을 읽은 후 복숭아나무를 이해하고 복숭아나무와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와 변화는 대상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편견 및 선입견과 진정한 이해라는 사고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답> ③

이 시는 나무와 나무의 간격이 모여 숲을 이룬다는 내용의 시로, 사람들 사이의 적당한 간격이 사회를 이루는 데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 ① 시적 화자는 멀리서 숲을 바라보다가 숲

속으로 들어간다. ② 많은 작품의 소재였던 '숲'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깨달음을 얻고 있다.

12. <답> ②

이 시에서 내적 의미와 외적 표현이 서로 상반되는 '반어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13. <답> ④

이 시에서 '간격'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것, 바람직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오히려 필요한 것이 이 시의 '간격'이다. [오] ① 이 시의 '간격'은 일반적 의미의 거리감과 다른 의미이다. ② 이 시에서의 '간격'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고독감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거리이다. ③ 오히려 '간격'과 '간격'이 모여 숲을 이룬다고 시의 화자는 말하고 있다.

14. <답> ⑤

㉠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다른 일반적인 시들과 다른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15. <답> ⑤

㉡은 적극적인 참여의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인이 인식의 깨달음을 얻게 된 계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 <답> ①

<보기>는 개인주의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공동체적 유대감이 살아 있는 사회에 대한 바람과 희망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시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간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7. <답> ⑤

<보기>와 [다]는 모두 나무라는 소재를 등장시켜 바람직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다]의 '간격'은 <보기>의 '여백'의 의미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나무'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과 관련지어 이야기하는 것은 [다]와 <보기>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⑤에서 <보기>의 화자가 '허공'이 외로움을 준다고 파악하여 이를 극복할 때, 성숙한 삶에 이를 수 있다고 진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능형 문제

| | | | | | | | | | |
|---|---|---|---|---|---|---|---|----|---|
| 1 | ④ | 2 | ⑤ | 3 | ③ | 4 | ③ | 5 | ① |
| 6 | ② | 7 | ④ | 8 | ④ | 9 | ① | 10 | |

1. <답> ④

화자는 선입견으로 인해 쉽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해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던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복숭아나무’를 점차 이해하게 됨으로써, ‘복숭아나무’의 ‘그 여러 겹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여러 겹의 마음’에 화자가 공감할 수 있게 된 것은 ‘복숭아나무’와의 소통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 화자 스스로가 자신의 외로움을 되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오] ① 화자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하고 있다. 이는 ‘여러 겹의 마음’으로 덮여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모습이므로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거리감을 갖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②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은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일방적인 추측이므로 이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가를 알게 된 것이므로 이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 ⑤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화자가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은 대상과의 거리감을 허물고 대상 가까이에 가게 된 것으로 이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답> ⑤

화자가 ‘그 복숭아나무’에 대해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난 후에는 그 ‘그늘’(㉠)에서 화자가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 따라서 ㉠은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이 강화되는 장소로 볼 수 있다. ㉠에서 필자는 ‘상이 막히어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생각이 웅색할 때’, ‘피로가 몸에 미칠 때’ 등이면 ‘매듭진 상을 골라서 풀곤 했’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밤나무를 ‘내 생명의 씨를 밝혀 주는 씨앗터’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곳을 ‘떠나 살게 되니’ 밤나무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해지고 있다. [오] ① ㉠을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장소로 파악하기보다는 ㉠에서 화자가 휴식을 취하며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장소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는 필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필자에게 안식처를 제공하

여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② ㉠에서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한 거리감을 회복하고는 있으나 이것을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는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주었던 장소가 아니라 밤나무가 필자에게 영향을 주는 장소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는 필자가 밤나무에 대한 글을 썼던 장소가 아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나’라고 서술되어 있다. ④ ㉠은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 작품은 복숭아나무가 의인화되어 있으나 복숭아 나무의 심리와 행동보다는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심리와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아래에서 필자가 다양한 고민을 해소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고민은 밤나무에 대한 것들이 아니다. 필자의 고민은 주로 창작의 고민과 그것으로 인한 피로감에서 오는 것들이다.

3. <답> ③

화자는 복숭아나무를 보면서 처음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로 인식했다가 점차 가까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즉 대상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화자가 복숭아나무가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고 느꼈던 것은 복숭아나무와 소통을 하지 않았고, 복숭아나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숭아나무는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바라본 부정적 존재였을 뿐, 만족했다가 실망하게 된 존재는 아니다. [오] ① 화자는 복숭아나무 가까이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소통이 없었다. ②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 ④ 대상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그것의 본질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⑤ 대상과 거리감을 두고 있었는데,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교감하게 되었다.

4. <답> ③

화자는 처음에 의도적으로 복숭아 나무 가까이로 가는 것을 피했다. 그냥 소통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 화자는 복숭아 나무의 그늘을 느낄 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다. 즉, 이것은 대상과 소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교감을 나누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복숭아 나무 곁으로 다가가지 않은 것이 복숭아 나무에 대한 실망감 때문은 아니며, 현재 복숭아 나무 곁에 있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어떤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소통을 거부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상대방과의 진정한 교류를 통해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5. <답> ①

'흰 꽃과 분홍 꽃을~그 나무'는 화자가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절을 해 버린 상태이다. '수천의 빛깔, 복숭아 나무그늘'은 화자와 복숭아 나무 사이의 완벽한 조화와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화자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편견을 벗어나고 복숭아나무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결과이다.[오답풀이]② 기존의 화자의 생각대로 복숭아나무를 바라보는 것으로 복숭아나무에 대한 편견과 관련이 있다.③ 복숭아나무가 나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화자가 대상을 이해하는 능동적인 태도이다.④ 자연 발생적인 정신적 성숙에 의해서 아닌, 화자가 대상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결과이다.⑤ 대상과 화자가 하나가 되는 친화적 관계가 아니라 두 대상이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이다.

6. <답> ②

위 시의 대상은 복숭아나무다. 시적 화자는 처음에는 복숭아나무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멀리로만 지나치다가 수천의 빛깔로 피어나는 복숭아나무의 꽃잎들을 보고 복숭아나무의 마음을 읽게 되며 그 외로움까지 알게 되고. 급기야 복숭아나무 그늘에까지 가서 복숭아나무의 심심한 황혼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화자는 복숭아나무에 대하여 처음에는 비교적 거리가 멀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운 거리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②와 같이 된다.

7. <답> ④

<보기>는 '그릇'을 인간에 비유하여 존재론적 의미로 확대하고 있으며, (보기)는 '복숭아나무'를 타인(他人)에 비유하여 타인의 진정한 존재의 모습을 인식하고 그와 교감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었다.[오답풀이]① (보기)에서 한 번은 죽는 인간의 유한성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죽음이 인간존재의 완성이라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파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② (보기)에는 '흙이 되기 위하여 흙으로 빛어진 모순의 흙'에서 삶은 유전하는 것이며 고정되거나 머무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러난다. 이것은 불교적인 연기설 혹은 윤회설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의 '깨어져서 완성되는'에 논리적으로 모순된 역설적 진술이 나타난다. (가)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는 타인으로 비유된 '복숭아나무'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대상의 본질을 진실로 이해하고 그와의 진정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8. <답> ④

이 작품과 <보기> 모두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이 작품은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보기>는 '목련꽃'의 속성에 빚댄 사랑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9. <답> ①

<보기>는 낮 → 저녁 → 밤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의 1연에서 1~6행까지는 대상을 이해하기 전의 마음이고, 7~12행까지는 대상을 이해한 후의 진술이다. 1연 마지막 행에서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라는 표현에서 대상의 참모습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음을 고백하고 있다.

10. <답> ⑤

㉠에서 '그늘'은 ㉡의 '그늘'과 달리 타인(복숭아 나무)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하는 평온한 공간으로 대상과의 진정한 이해와 통합이 존재하는 공간이다.